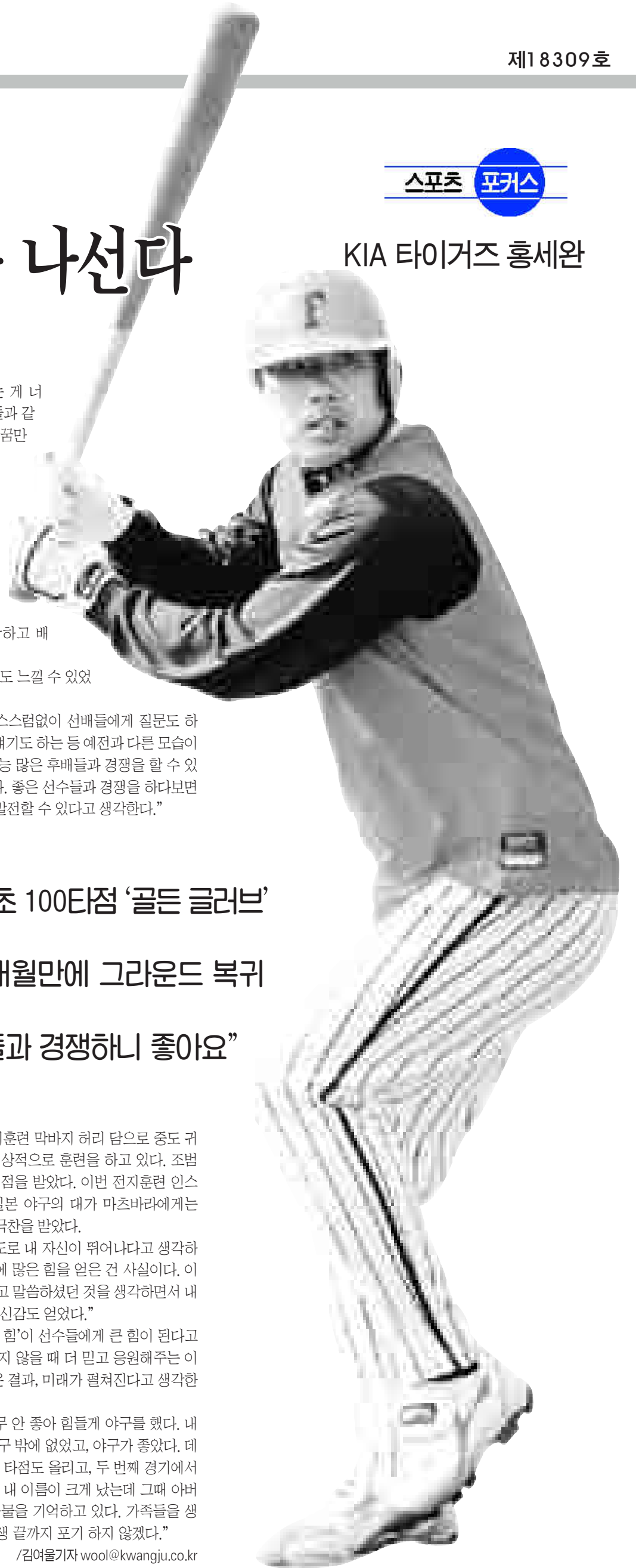


스포츠 포커스

KIA 타이거즈 홍세완

부상 털고 '100타점 유격수' 명예회복 나선다



“희망을 보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2007년 7월29일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 야구장, 심재학의 2루타 때 홈으로 뛰어들던 KIA의 주자 홍세완이 주저 않았다. 2005년 수술 받았던 오른쪽 무릎이 문제였다. 결국 홍세완은 프로 데뷔 이후 세 번째 수술대에 올랐다.

홍세완이 다시 방방이를 들었다. 그라운드를 떠난 지 1년8개월 만이다.
 프로 4년차였던 2003년, 홍세완은 유격수 역대 최초로 100타점 고지를 밟으며 그 해 골든 글러브를 거머쥐었다. 그래서 늘 ‘100타점 유격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부상’은 홍세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프로 10년차에 접어들던 그의 부상일지에는 어느 고참 선수보다 더 많은 부상기록이 빼곡히 적혀있다.

프로에 데뷔한 2000년 경기중 공에 맞아 손목이 골절된 게 시작이었다. 2001년 데뷔 2년 만에 주전 자리를 꿰차지만 무릎과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2002년 디스크, 고막 파열이 부상일지에 새로 올랐다. 야구 인생 최고의 해였던 2003년에도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고, 2005년에는 오른쪽 무릎 때문에 다시 수술대에 누웠다. 그리고 2007년 수술 부위를 다쳐 긴 재활의 길에 올랐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부상에 시달렸다. 하지만 늘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경기장에 나서면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게 프로선수의 심정 아니겠는가? 지금도 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출발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해마다 크고 작은 부상으로 신음했지만, 홍세완은 늘 경기장에 있었다. 팀 상황때문에 충분한 재활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다시 경기에 뛰어야 하면서 부상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재활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과정이었고, 그만큼 시간도 더 걸려 지난 시즌 데뷔 후 처음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너무 힘들어 야구를 그만 둘 생각 까지 했었다. 필하면서 살까 진지하게 고민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야구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TV도 나오지 않는 산에서 홀로 재활을 할 때도 아내가 문자로 경기 상황을 알려줄 정도로 야구 생각이 간절했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눈물도 흘렸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일어난 홍세완은 지난 12월 자비를 들여 강철민, 이현곤과 필리핀으로 훈련을 다녀왔다. 투·포수조를 따라 팔에서 먼저 캠프를 시작하기도 했다. ‘힘들다’는 얘기가 입에 붙을 정도로 호된 훈련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낀 행복이기도 했

다. “야구를 한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 동료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게 꿈만 같았다. 그동안 감독님과 코칭스태프도 바뀌고, 새로운 후배도 많아 훈련 나갈 때마다 신인이 된 기분이었다. 긴장도 되고, 많은 걸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다.”

달리진 팀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선수들이 스스럼없이 선배들에게 질문도 하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이 다. 패기 넘치고, 재능 많은 후배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이다. 좋은 선수들과 경쟁을 하다보면 나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3년 유격수 최초 100타점 ‘골든 글러브’

무릎 수술 후 20개월만에 그라운드 복귀

“재능 많은 후배들과 경쟁하니 좋아요”

예감은 좋다. 전지훈련 막바지 허리 담으로 중도 귀국하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조범현 감독에게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번 전지훈련 인스트럭터로 참가한 일본 야구의 대가 마츠바라에게는 ‘훌륭한 선수’라는 극찬을 받았다.

“극찬을 받을 정도로 내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말에 많은 힘을 얻은 건 사실이다. 이것저것 조언해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도 얻었다.”

홍세완은 ‘경쟁의 힘’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힘들 때, 좋지 않을 때 더 믿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한다.

“가장 형편이 너무 안 좋아 힘들게 야구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야구 밖에 없었고, 야구가 좋았다. 데뷔전에서 첫 안타에 타점도 올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 신문에 내 이름이 크게 났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야구인생 끝까지 포기 하지 않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QUIZ

1. 다음 중 가장 오래된 도시는 어디인가?
 2. 다음 중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인가?
 3. 다음 중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어디인가?

정답: 1. 서울, 2. 서울, 3. 서울

산행안내

1. 산행 코스: ...
 2. 산행 시간: ...
 3. 산행 준비물: ...

산행안내

1. 산행 코스: ...
 2. 산행 시간: ...
 3. 산행 준비물: ...

산행안내

1. 산행 코스: ...
 2. 산행 시간: ...
 3. 산행 준비물: ...

남성 힘의 원천

자신감을 높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남성 필수품!
 ● 활력제거된 활기찬 남성 필수품!
 ● 활력 원천! 활력은 자신감!
 ● 활력제거된 활기찬 남성 필수품!

010-3598-7080

마사지 광주지점

시간제 겸마직 채용

● 근무일: ...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010-3598-7080

TOURIST

010-3598-7080